



"새벽 호랑이 쥐나 개나 모기나 하루살이나 하는 판"

뜻: 아주 배가 고프거나 상황이 급해지면,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사소한 것까지 닥치는 대로 붙잡게 된다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절박함 · 궁지 · 무분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새	벽	↓	호	랑	이	↓	쥐	나	↓	개	나		
모	기	나	↓	하	루	살	이	나	↓	하	는	↓	판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새	벽	↓	호	랑	이	↓	쥐	나	↓	개	나		
모	기	나	↓	하	루	살	이	나	↓	하	는	↓	판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사벽] [호랑이] [쥐나] [개나] [모기나] [하루살이나] [하는] [판]

웹에서 보기

